

**APPENDICES TO  
REPORT RE “RENUNCIATION OF CLAIMS TO FORMER MISSION PROPERTY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Origin: The General Secretary, General Council**

**APPENDIX I:**

Resolution 6-9 from the 106<sup>th</sup>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2021): “남북 화해를 위한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리 포기 선언문 채택”

(“Adoption of a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for the Sake of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original, with unofficial English translation

[Link to file: PROK GA 106 giving up property in North Korea.pdf](#)

202 제106회 총회 회의서류

사회부 심의안건 6-9

1. 현의제목 : “남북 화해를 위한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리 포기 선언문 채택” 현의의 건
2. 현의부서 : 평화·통일위원회(평화공동체운동본부)
3. 제안설명 :

- 1) 총회는 교단의 선교신학에 입각하여 신앙고백을 구체화하고 교단 선교의 실천방향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하여 선언서를 채택하여 왔습니다.
- 2) 평화·통일위원회는 제104회, 105회 총회 동안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리 포기 선언서’(이하 ‘재산권 포기선언’)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 3)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안 중에 하나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분들이 북에 두고 온 재산권 문제입니다. 통일이 된다 해도 북의 재산에 대한 권리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와 분열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 4) ‘재산권 포기선언’은 성서가 요청하는 ‘회년 신앙’의 고백이며(레 25:23),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상징적인 실천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5) 이에 ‘남북 화해를 위한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리 포기 선언문’을 교단의 선교 실천선언으로 구체화하는 선언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선언문의 시대적 의미와 필요성은 다음의 제안문을 통해 밝힙니다.
- 6) ‘남북화해를 위한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리 포기 선언’ 제안문  
하나님께서서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여정을 인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장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 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일이 된다 해도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와 분열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리 포기선언>(이하 ‘재산권 포기선언’)이 성서가 요청하는 회년 신앙의 고백이며,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상징적인 실천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장교회는 2019년 사회선교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사회선교 선언」에서, “우리는 남과 북의 화해와 치유를 위해, 회년 정신에 따라 북에 두고 온 재산권 포기선언이 필요함을 공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민족화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으로서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 포기선언 연구”를 제104회 총회부터 2년 간 해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을 현의안에 담아 106회 총회에 제출합니다.

여기 제안된 '재산권 포기선언'은 무엇보다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고백입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역사의 깊은 상처를 씻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활동은 이 고백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서의 창조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믿음은 땅의 공공성(公共性)에 관한 이해와 깊이 연관됩니다. 노예살이를 벗어나 새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길 광야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르침은 '은 세상/땅(에레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출 19:5). 땅의 공공성에 관한 고백은 성서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관한 핵심 가르침으로서, 그 절정은 회년 신앙입니다. 레위기 25장 <성결법전>에 나오는 회년 신앙은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레 25:23). 이 규정에는 불의와 불균형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뼈아픈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므로, 땅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땅이 없는 사람들은 노예나 다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사회제도에서 빈부격차와 온갖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회년 사상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청사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분단 75년 동안 남과 북은 재산권의 핵심권리인 토지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북측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주도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 북측의 사회주의 헌법이나 토지법에서도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측은 1차 미 군정 당국에 의해 1948년 3월 11일 과도 정부법령을 공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일본인 소유 농지, 즉 귀속농지에 한하여 우선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유상매수(有償買收)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농가 호당 2ha(논·밭 포함)를 상한으로 한다는 골자였습니다. 이후 남측의 본격적인 농지개혁은 1949년 6월 21일에 제정, 공포된 <농지개혁법>에 의거 1950년에 실시했습니다.

이로써 남과 북의 기본 재산권리인 토지가 새롭게 재편되었고, 이후 남과 북의 토지는 사실상 각각 다른 국가의 관리 속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인들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남측의 토지제도는 인민의 공동소유로 사유화를 금지하고 있는 북측의 토지제도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바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은 통일이 된 후에도 북측지역만이라도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권을 공

## 204 제106회 총회 회의서류

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75년 전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북측지역의 토지에 대해 재산권리를 새삼 주장한다는 것은 화해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세력 확장식의 '북한선교' 정책들을 재고해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한국교회의 일부 보수적인 교단을 중심으로 '북한교회 재건운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해방 직후 북측지역에 소재하던 교회를 재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교파별, 교단별로 진행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북측지역을 남한교회의 연고에 따라 나누고 북측의 그리스도인들과 협의와 상호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제국주의적 방식의 선교는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교회 재건운동'은 남북한 교회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산권리 포기를 통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화해 조치를 시행한다면, 남과 북의 교류협력 가속화와 신뢰구축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북측교회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의 개신교단으로 출발하여 공고히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남측교회의 과제이고, 거꾸로 그러한 모델을 통해 이를 개혁의 계기로 삼아 서로 협력하는 교회연합운동과 맞물리게 해야 합니다. 이런 화해적 조치와 선교협력이 남측교회로 하여금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며, 북측교회 역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동안 선교 열정으로 준비해온 '북한교회 재건 운동' 또한 디아코니아 신앙에 근거한 실천방안과 북측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측사회 맞춤형 사회봉사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보다 능동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생명을 풍요롭게 하도록, 지속 가능한 생태경제융합 사회개발사업 사역을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사실상 교회 재건이 가능하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남북한의 화해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은 상징적이고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이 선언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단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천명합니다.

## 4. 현의내용 :

- 1) '남북 화해를 위한 북녘에 두고 온 재산 권리 포기 선언문'을 아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남북 화해를 위한 북녘에 두고 온 재산 권리 포기 선언문**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레위기 25장 23절)**

우리는 한민족인 남과 북이 증오와 대립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민족의 번영과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역사적 과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라 말씀하셨다(마 5:9). 평화통일은 남북이 피차 원수로 대했던 과거에서 돌이켜 밝은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자기를 쇠신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바로 지금 더 나은 화해의 길로 나서는 실천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의 실제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초를 놓는 심정으로 북녘에 두고 온 모든 재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재산권리의 포기는 진정한 나눔과 화해, 교류협력과 통일을 향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제국주의적 선교를 멈추고 동시에 선제적으로 재산 포기라는 화해의 손짓을 보내어 남북 교류협력의 가속화와 신뢰 구축에 토대를 놓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법전의 정신이 녹아 있는 회년 신앙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땅과 생명체의 주인 이심을 고백한다(레 25:23). 땅은 개개인의 사적 재산이기 이전에 모든 생명을 양육하는 터전이요,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 토지소유권은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양산해 왔다. 또한 지난 분단의 세월 동안 남북의 토지는 새롭게 재편되었고, 각각 다른 체제를 지닌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다. 남측의 사적 소유권에 기대어 자신의 재산권리를 새삼스럽게 다시 주장하는 것은, 인민의 공동소유기에 사유화를 금지하고 있는 북측의 토지제도과 법을 무시하는 일이며, 분단 70년을 넘어 새로운 화해의 길을 열고 남북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통일 실천의 장애 큰 걸림돌이 된다.

능력에 따라 벌고 필요에 따라 나누며 유무상통하였던 초대 교회의 신앙을 본받아, 평화통일과 사회정의, 생명존중을 이루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땅이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공성을 생각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화해의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각 교단이 표방하는 세력 확장식의 일방적 ‘북한선교 정책’을 내려놓고, 온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의 창구를 가지고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화해 협력의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을 것이라 말하였다(사 65:25).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남북의 공존과 평화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반세기가 넘는 대립과 갈등, 증오의 역사를 청산하고 참된 화해와 평화의 미래를 밝히고자 지금 여기에서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리 포기선언’을 하는 것이며,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바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6회 총회

**UNOFFICIAL English translat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 106<sup>th</sup> General Assembly  
Ministry of Social Affairs, Resolution 6-9**

“남북 화해를 위한 북녘에 두고 온 재산권리 포기 선언문 채택”

(“Adoption of a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for the Sake of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ink to file: [english translation.docx](#)

**1. Title:**

**"Adoption of a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for the Sake of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2. Department:**

Peace and Reunification Committee (Peace Community Movement Headquarters)

**3. Description of Proposal:**

1) From time to time, the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a declaration to embody its confession of faith based on the mission theology of the denomination and to announce the direction of the denomination's practice of mission, for both internal and external audiences

2) During the 104th and 105th General Assemblies, the Peace and Reunification Committee conducted research on a declaration with regard to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3) One of the issues to be addressed in advance befor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an happen is the issue of property left by those who came down from the North to the South. Even if reunification is achieved, it will cause further serious social problems and division if the issue of property claims in the North is not resolved.

4) “A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is a confession of the Bible's demand for "Jubilee Faith" (Lev 25:23), and we believe it will be a symbolic act towards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5) Therefore, we would like to adopt the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for the Sake of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as a declaration of the missionary practice of the PROK. The significance of this declaration, and the necessity for it, is revealed in the following proposal.

6) In this proposal, “A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for the Sake of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God has guided the Korean Church's journey regarding reconcili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e PROK will continue to follow God's guidance in working hard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In this work, one of the important tasks to be addressed is the ques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behind in the North.” If this problem is

not resolved, even if unification is achieved, it will cause further serious social problems and division. We believe that the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is a confession of faith demanded by the Bible and will be a symbolic action for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ocial Mission Declaration" released by the Social Mission Policy Council in 2019, the PROK said, "We share the need for a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jubilee for reconciliation and heal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order to realize this, the Peace and Reunification Committee conducted a "Study on a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for two years since the 104th General Assembly as a concrete way for our denomination and the Korean church as a whole to implement national reconciliation. We are now submitting the results to the 106th General Assembly with this proposal.

The proposed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is, above all, a confession of faith that the Bible asks of us today. The Korean church's activities to heal the deep wounds of history caused by division and war and to create a peaceful Korean peninsula cannot be separated from this confession.

The biblical faith in creation and God's salvation is deeply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earth as belonging to the common good. The first instruction given to the people of the wilderness who would escape slavery and live as a new people was the declaration that "the whole world/earth (Eretz) belongs to God" (Ex. 19:5). Confession of the public nature of the earth is a key teaching in the new social relationship presented by the Bible, and its culmination is the jubilee faith. The jubilee faith in Leviticus, chapter 25, "The Code of the Holy Law," states, "The land is mine. You are just travelers" (Lev. 25:23). This regulation responds to the painful experiences of the Israelite faith community, which had suffered from injustice and inequality.

The earth was created by God, and it is not something that humans can increase with their own labor. Since land is not a product of labor, when land is concentrated in a few hands, those who do not have land end up living as slaves. This is true not only of agricultural societies, but also today. In a social system that allows people to monopolize land, we se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all sorts of social conflicts. Therefore, the biblical idea of jubilee should be a blueprint not only for the Israelite community to build a new society, but also a confession of all who work for a peaceful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During the 75 years of division, South and North Korea have taken different paths regarding systems of land ownership. On March 5, 1946, North Korea implemented land reform in the form of "free confiscation and free distributio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Since then, the socialist constitution or land law in the North has also made it clear that "all land in the country is owned by the people in common, and no one can sell or buy it, or make it private." In the South, at first the U.S. military authorities promulgated a transitional government decree on March 11, 1948, implementing farmland

reform only for Japanese-owned farmland, that is farmland belonging to Shinhan Corporation. It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id purchase and paid distribution,” but with an upper limit of 2 hectares (including rice paddies and fields) per farmhouse. The first full-scale land reform in the South was carried out in 1950 under the Land Reform Act, enacted and promulgated on June 21, 1949.

As a result, property rights to lan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were newly reorganized, and since then, the land in South and North Korea has actually been under the management of two different systems. South Korea's system of land ownership, in which individuals use land as a means of increasing their property, fundamentally conflicts with the North's system of land ownership, which prohibits privatization of land as the common property of the people.

This needs to be resolved. To do this, what we have to do first is give up claims to property from 75 years ago. Making claims on property rights on land in the North can be an obstacle to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he South Korean church should reconsider its power-expanding "North Korea Missionary" policies. For a long time, the "North Korean Church Reconstruction Movement" has been developed among some conservative denominations of the Korean church. Immediately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a plan was established to rebuild the church located in the northern region, and each denomination and church proceeded accordingly. However, this imperialistic approach to mission, which divides the northern region according to its connection to the South Korean church and pushes forward unilaterally without consultation or mutual communication with Christians in the North, should be avoided.

The "North Korean Church Reconstruction Move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serves as “salt and light” in Korean society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hurches of North and South Korea. If the church takes the lead in implementing reconciliation measures through the giving up of property rights,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accelera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 building trust.

It is the task of the church in South Korea to help the North Korean church start as a Protestant denomination and grow solidly in its own way, or conversely, through such a model, use it as an opportunity for reform by engaging with the cooperative church union movement. This is because such reconciliation measures and missionary cooperation will keep the South Korean church from falling into arrogance, and the North Korean church will also be able to recover its self-confidence.

Meanwhile, the North Korean Church Reconstruction Movement, which has been prepared with missionary enthusiasm, can also seek more active ways to jointly develop social service approaches to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North Korean church and practical measures based on diaconal faith. This is a plan to help the church rebuild by developing a variety of sustainable eco-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rojects to enrich the socio-economic lives of North Koreans.

The path to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possible through both symbolic and concrete action. Therefore, we pledge in advance to give up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from our faith perspective as Christians, and to take the initiative in ensuring that this declaration is carried out in practice.

#### 4. Contents of the Declaration:

1) We urge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for the Sake of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follows: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for the Sake of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land is mine. You are just travellers, temporary residents who come and live with me." Leviticus 25:23***

We urge the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to overcome the division of hatred and confrontation and move toward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tributes not only to the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Korea but also to world peace, and is a historical task that God has entrusted to the Christians of this land. The Lord said that when we make peace, we will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Matthew 5:9). Peaceful reunification should begin by setting the stage for better reconciliation right now, promising to work together for a bright future, turning from the past when South and North Korea treated each other as enemies.

We pledge to give up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with the intention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real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renunciation of property claims is a symbolic and practical step toward true sharing and reconcili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finally unification. We are seeking to take the lead in rejecting mission to the North Korean people that is imperialistic. At the same time we are seeking to send a gesture of reconciliation by renouncing claims to property preemptively, so as to lay the foundation for accelera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build trust.

We confess that the Creator God is the Lord of all land and creatures according to the jubilee faith embedded in the Code of Holiness (Le 25:23). Before land is an individual's private property, it is the nurturing ground for all life and it has a public dimension. Therefore, the land should be used for the glory of God.

Private land ownership in a capitalist society has encouraged human greed and flowed in a distorted direction, producing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numerous harmful effects. In addition, since the time of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into South and North, land has come to be organized and managed according to two different legal systems. Reclaiming one's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South Korea's legal



system of private ownership ignores North Korea's legal system, which prohibits private land ownership in which land is treated as the common property of the people. This is a major obstacle in opening up a new path to reconciliation beyond the 70 years of division and in seeking peace and prosperity.

Following the faith of the early church, where each member earned according to their ability and shared according to their need, Christians who want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social justice, and respect for life should not lay claim to their land rights, but take on the mission of reconciliation that opens a new future, keeping in mind God's emphasis on the common good. The churches in South Korea should turn away from the power-expanding unilateral "North Korean missionary policy" advocated by each denomination, and instead unite in turning toward the path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o that Korean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can rejoice and laugh together in new and creative ways.

Isaiah the prophet said that in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land that God will create, the lion will eat straw like the cow (Is 65:25). If we do not abandon the greed of capitalism, the path of coexistence and peaceful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come increasingly distant.

In order to leave behind the confrontation, conflict, and hatred that has spanned more than half a century of our history, and to reveal the future of true reconciliation and peace, we are here and now making a "declaration regarding the renunciation of claims to property left in the North." We invite everyone who wants peace and unification in this land to participate.

(106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APPENDIX II:**

**A list of property belonging 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in Korea in 1942: “Summary of Property in Korea -- with values, The United Church of Canada, Korea Mission”**

**Link to file: [Korea Property Files 83.011 box 16.pdf](#)**

**APPENDIX III:**

**“Joint State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ivision of World Outreach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974”**

**Link to file: [1974 joint statement.pdf](#)**

DRAFT